

응급구조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정명애* · 김순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특성 등 인간에 대한 가치와 윤리적 가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삶과 죽음에 대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¹⁾.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보건의료인에게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체계는 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으로 의학이나 간호학 교과 과정에 윤리강좌가 개설되고 있다²⁾.

윤리이론은 크게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로 나뉜다. 공리주의란 결과 이전의 원인이나 의도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선의 유무가 윤리행위의 척도가 된다는 것으로 수단은 중요시되지 않고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시한다. 의사 결정 문제에서도 공리주의자들은 전적으로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의무주의자들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동의 형태나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져야 할 절대가치가 있다³⁾.

김 등⁴⁾은 응급구조학은 인간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만큼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윤리를 강조하는 전문직으로,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의 생과 사, 전문성에 기초하여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적절한 응급처치, 합병증 예방과 같은 현장의 순간순간에 적절한 응급구조사의 의사결정 및 판단은 응급구조사 자신이 가진 윤리적 가치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⁵⁾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는 실무현장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전문직 역할, 많은 책임과 적은 법적 권리 등에서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응급구조사가 어떤 응급처치나 조치를 하는데 있어 환자로부터 동의를 필요하든 환자가 처치를 거부한다거나, 가족들의 환자를 소생시키지 말라고 요구한다거나, 법적인 소생불가 지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고 가족의 고통이나 개인의 삶의 질에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만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고 존중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체계가 현대와 미래사회에서 적합할 것인지 의문이 끊어질 않고 있다⁶⁾.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 형성과 변화양상을 조사한 조와 송⁶⁾의 연구결과, 입학시에는 전공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굳어졌고, 도덕적 판단기준은 주로 대학생활에서 향상되고 학생시절에 가졌던 윤리적 가

* 신홍초등학교 보건교사

** 선린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치관에 의하여 의사 결정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로는 김⁵⁾이 유일하며 연구 대상 또한 1, 2학년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1, 2, 3학년 학생들이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여 응급구조과 학생을 위한 바람직한 윤리교육의 지침 마련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윤리적인 딜레마 극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과 1, 2, 3학년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윤리적 가치관과 각 영역별, 문항별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3. 용어 정의

1) 이론적 정의

윤리적가치관: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로 구분되며 인간의 행동방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와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⁷⁾.

2) 조작적 정의

윤리적 가치관: 이⁸⁾가 개발한 질문지를 김⁵⁾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로 보건의료업무행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신념

4.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 P시의 1개 대학 응급구조과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모집단인 전국의 응급구조과 학생에게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윤리적 가치관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

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관찰이 어렵고 대상자의 자기보고 척도에 의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II. 문헌고찰

윤리와 도덕은 서로 혼용되어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 개념 사이의 많은 부분이 서로 중복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되어진다. 윤리는 광의로 학문적, 이론적인데 비해 도덕은 협의적인 것으로 생활적, 실천적이다⁹⁾.

모든 사회집단은 그 사회의 공동 목표의 달성과 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체시에 대해서는 긍정과 지지의 반응을 보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과 비난의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지지와 비난의 반응이 어떤 고정 관념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을 때 관습은 오랜 자기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형태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것이 그 사회의 윤리 또는 도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¹⁰⁾.

현대사회는 생명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권리신장,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술 환경이 예전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이 야기되어 해묵은 전통적 윤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¹¹⁾.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는 실무현장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적이거나 상식적, 감정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심각한 갈등에 빠지거나 무력함마저 느끼기 쉽다. 심지어는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⁵⁾.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

하려면 전문직 행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윤리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¹²⁾.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인간의 안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해야 하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교과과정 안에 응급구조사로서의 직업윤리는 물론, 일반적인 도덕 판단을 위한 교육내용이 강화 되어야 한다⁵⁾.

그러나 이러한 윤리문제를 제대로 연구한 선행 연구는 김⁵⁾의 연구뿐이어서 앞으로도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윤리적인 가치관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경상북도 P 시에 소재한 1개 대학 응급구조과 1학년 50명, 2학년 40명, 3학년 50명으로 총 140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10월 9일~10월 11일이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질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으며 총 140부를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이⁸⁾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⁵⁾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윤리적 가치관은 4가지 영역으로 나뉘었으며 인간생명영역 9문항, 대상자 관계영역

역 9문항, 업무관계 영역 8문항, 협동자관계 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하였다.

각 영역은 윤리적 측면 두 범주 즉,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무론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4점에서 '반대' 1점, 공리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1점, '반대' 4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다. 즉 절대적 공리주의 입장을 1점, 절대적 의무주의 입장을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 4, 5, 6, 8, 10, 12, 13, 16, 23, 25, 27, 30번을 의무주의로 해석하여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 $\alpha = 0.68$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0.51$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test, 학년별로 윤리적 가치관 전체 및 각 영역별, 문항별 윤리적 가치관 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학년별, 성별, 종교 유무, 임종환자 경험 유무, 응급구조과에 대한 생각, 윤리교육시 참석여부, 현재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 등이었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과 1학년의 평균연령은 20.1세, 2학년 21.5세, 3학년 22.2세였으며, 성별에서 남자는 1학년 31명(62%), 2학년 23명(57.5%), 3학년 22명(44%), 여자는 1학년 19명(38%), 2학년 17명(42.5%), 3학년 28명(56%)이었

다. 종교는 ‘없음’이 1학년 22명(44%), 2학년 20명(50%), 3학년 29명(58%)으로 가장 많았다. 임종환자 관찰경험에서는 1학년은 ‘없다’가 76%, 2학년은 ‘있다’가 67.5%, 3학년은 86%로 큰 차이를 나타내 대조적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43.07, p = 0.00$).

응급구조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보장된 직업이므로 가능한 유지한다’는 답변이 1학년 33명(66%), 2학년 21명(52.5%), 3학년 21명(42%)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으로 삼는다’가 1학년 9명(18%), 2학년 13명(32.5%), 3학년 15명(3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윤리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 ‘상황에 따라 바뀐다’가 1학년 23명(46%), 2학년 18명(45%), 3학년 18명(36%)을 나타냈다.

윤리교육이 있다면 ‘참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1학년은 ‘참석하겠다’ 18%, 2학년은 17.5% 3학년은 42%였으며, 3학년이 가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 = 14.13, p < 0.02$)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윤리적 가치관

1) 윤리적 가치관 전체 비교

윤리적 가치관의 전체 영역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학년이 평균 점수가 2.86점, 2학년이 2.75점, 3학년이 2.88점으로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3.072, p < 0.049$).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χ^2	p
		N(%)	N(%)	N(%)		
성 별	남	31(62.0)	23(57.5)	22(44.0)	3.49	0.174
	여	19(38.0)	17(42.5)	28(56.0)		
종 교	기독교	8(16.0)	6(15.0)	13(26.0)	9.18	0.32
	천주교	3(6.0)	2(5.0)	1(2.0)		
	불 교	16(32.0)	10(25.0)	6(12.0)		
	기 타	1(2.0)	2(5.0)	1(2.0)		
	없음	22(44.0)	20(50.0)	29(58.0)		
임종환자 관찰경험	있다	11(22.0)	27(67.5)	43(86.0)	43.07	0.00
	없다	38(76.0)	13(32.5)	7(14.0)		
응급구조직에 대한 생각	평생직업으로 삼는다.	9(18.0)	13(32.5)	15(30.0)	8.64	0.195
	보장된 직업이므로 가능한 유지할 것임	33(66.0)	21(52.5)	21(42.0)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임	6(12.0)	4(10.0)	12(24.0)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임	2(4.0)	1(2.5)	1(2.0)		
윤리적 기준	매우 확고하다.	7(14.0)	4(10.0)	11(22.0)	3.94	0.41
	가끔 흔들린다.	15(30.0)	17(42.5)	15(30.0)		
	상황에 따라 바뀐다.	23(46.0)	18(45.0)	18(36.0)		
윤리교육시 참석	참석하겠다.	9(18.0)	7(17.5)	21(42.0)	14.13	0.02
	관심없다.	11(22.0)	11(27.5)	15(30.0)		
	참석하지 않겠다.	8(16.0)	7(17.5)	4(8.0)		
	모르겠다.	22(44.0)	15(37.5)	10(20.0)		

<표 2> 윤리적 가치관 점수 비교

내 용	1학년	2학년	3학년	F	p
	Mean±SD	Mean±SD	Mean±SD		
윤리적 가치관	2.86±0.28	2.75±0.25	2.88±0.21	3.072	0.049

2)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 비교
 윤리적 가치관은 인간 생명 영역, 대상자 관계 영역, 업무 관계 영역, 협동자 관계 영역 등 4개 영역으로 비교하였다.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1학년 평균 2.68점, 2학년 2.47점, 3학년 2.69점으로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학년 순이었고 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1) 인간 생명 영역

1, 2, 3학년의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그러나 문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

<표 3> 인간생명 영역의 문항별 윤리적 가치관점수 비교

문 항	1학년	2학년	3학년	F	p
	Mean±SD	Mean±SD	Mean±SD		
1.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	2.56±0.83	2.52±0.75	2.62±0.90	0.15	0.86
2.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2.38±0.98	2.37±1.05	2.66±1.04	1.21	0.30
3.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무의식 환자의 인공호흡기 작동을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중지시키는 것이 옳다.	2.87±1.05	2.64±0.98	2.68±0.89	0.77	0.46
*4.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	2.85±1.11	2.17±1.10	2.38±1.10	4.53	0.01
*5.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	3.14±1.06	2.90±1.12	3.02±1.16	0.52	0.59
*6. 심한 선천성 기형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2.54±1.14	2.30±1.18	2.57±1.22	0.67	0.51
7. 질병말기 환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 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2.98±0.91	3.02±0.89	3.22±0.97	0.925	0.39
*8.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2.26±1.10	2.23±1.03	2.04±0.91	0.656	0.52
9.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	2.64±1.00	2.32±1.16	2.87±0.92	3.187	0.44
계	2.68±0.53	2.47±0.50	2.69±0.45	2.54	0.08

*표는 의무주의로 해석하여 역코딩한 문항임

<표 4> 대상자관계 영역의 문항별 윤리적 가치관점수

문항	1학년	2학년	3학년	F	p
	Mean±SD	Mean±SD	Mean±SD		
*10. 처치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의 의견이 환자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응급구조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00±0.94	2.74±1.09	2.76±1.00	0.96	0.38
11. 환자가 종교적인 금기 때문에 치료나 처치를 거부할 때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	3.38±1.01	3.23±0.98	3.46±0.67	0.72	0.48
*12.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	1.62±1.12	2.00±1.25	2.02±1.30	1.63	0.20
*13.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옳다.	3.22±1.01	3.37±0.92	3.36±0.98	0.36	0.69
14.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는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옳다.	3.06±0.95	3.25±0.92	3.08±0.92	0.53	0.58
15. 사고로 인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옳다.	2.92±1.02	2.80±1.22	3.18±0.94	1.55	0.21
*16.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응급구조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3.24±0.89	3.40±0.90	3.26±0.87	0.41	0.66
17. 지나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환자는 문제 환자이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	2.76±0.91	2.97±0.94	3.02±0.75	1.23	0.29
18. 환자가 약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하여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옳다.	3.24±0.79	3.15±1.07	3.32±0.99	0.35	0.70
계	2.93±0.32	2.97±0.41	3.03±0.33	0.98	0.37

*표는 의무주의로 해석하여 역코딩한 문항임

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 문항에서 1학년 평균 점수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은 2.38점, 2학년 2.17점 순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4.53, p < 0.01$).

(2) 대상자관계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점수가 1학년 2.93점, 2학년 2.97점, 3학년 3.03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소 높아졌으나,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문항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없었다(표 4).

(3) 업무관계 영역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1학년 2.80점, 2학년 2.70점, 3학년 2.78점으로 1학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학년 순이었다. 그러나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문항별 분석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의사의 행위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 문항에서 3학년이 3.48점, 2학년이 3.47점, 1학년이 2.94점으로 모두 의무주의 입장이 강했다. 이는 통

<표 5> 업무관계 영역의 문항별 윤리적 가치관점수 비교

문항	1학년	2학년	3학년	F	p
	Mean±SD	Mean±SD	Mean±SD		
19. 의사의 행위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	2.94±1.09	3.47±0.84	3.48±0.73	5.62	0.00
20.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억제대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2.59±1.01	2.37±1.05	2.62±1.02	0.72	0.48
21.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치료해도 불구가 되는 중환자보다는 재활이 가능한 경환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	2.50±1.18	2.07±1.11	1.84±0.93	4.77	0.01
22. 처치를 잘못했으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실수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3.04±0.98	3.25±0.89	3.46±0.76	2.80	0.06
*23.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	3.48±0.73	3.35±0.97	3.48±0.76	0.35	0.69
*24. 응급구조사는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70±1.29	2.52±1.26	2.46±1.14	0.50	0.60
*25. 환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위약(placebo)을 주어서는 안 된다.	2.48±0.90	1.92±1.02	2.30±0.97	3.37	0.02
26. 처치업무에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생각될 때라도 업무규정에 따른다.	2.78±0.88	2.70±1.01	2.62±0.96	0.35	0.70
계	2.80±0.36	2.70±0.40	2.78±0.33	0.80	0.44

*표는 의무주의로 해석하여 역코딩한 문항임

계적으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5.62, p = 0.00).

또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치료해도 불구가 되는 중환자보다는 재활이 가능한 경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 문항에서 1학년이 2.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이 2.07점, 3학년이 1.84점 순으로 가장 공리주의 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4.77, p < 0.01).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1학년과, 3학년 모두 3.4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3.35점으로 나타나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환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위약(placebo)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문항에서 1학년이 2.48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학년이 2.30점, 2학년이 1.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3.37, p < 0.02).

(4) 협동자관계 영역

협동자관계 영역에서 학년간 윤리적 가치관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1학년이 3.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 3.17점, 2학년 3.08점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문항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없었다. 그러나 ‘동료 응급구조사가 의무기록의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에서, 3학년이 3.72점, 1학년, 2학년 3.40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표 6> 협동자관계 영역의 문항별 윤리적 가치관점수 비교

문항	1학년	2학년	3학년	F	p
	Mean±SD	Mean±SD	Mean±SD		
*27. 동료 응급구조사가 처치 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해 주는 것이 옳다.	3.58±0.70	3.35±0.92	3.32±0.98	1.24	0.29
28. 동료 응급구조사가 의무기록의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	3.40±0.90	3.40±0.95	3.72±0.57	2.45	0.08
29. 업무도중 동료 응급구조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척하는 것이 옳다.	3.60±0.60	3.30±0.91	3.62±0.63	2.69	0.07
*30. 당신이 승진대상자로 지목되고 있으나 동료가 승진대상자로 더 적임자인 경우 직속상관에게 동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2.26±1.10	2.30±1.18	2.04±1.14	0.71	0.49
계	3.21±0.44	3.08±0.55	3.17±0.43	0.78	0.46

*표는 의무주의로 해석하여 역코딩한 문항임

3.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성별, 임종 경험 유무, 종교 유무, 응급구조직에 대한 생각, 윤리교육시 참석 여부, 윤리적 기준 등을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 '3학년'에 비하여, '2학년'이 '윤리

교육시', '참석하지 않겠다'에 비하여 '참석하겠다'와 '윤리적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보다는 '매우 확고'할 때,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4.0%였다(표 7).

<표 7>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학년1 (1학년/ 3학년)	-0.009	0.071	-0.016	-0.122	0.903
학년2 (2학년/ 3학년)	-0.12	0.062	-0.228	-2.067	0.041
성 별 (남=1. 여=0)	-0.065	0.048	-0.124	-1.339	0.183
임종경험 유무 (1=있음, 0=없음)	-0.002	0.056	-0.004	0.041	0.967
종교 유무 (1=있음, 0=없음)	-0.006	0.048	-0.012	-0.127	0.899
응급구조직에 대한 생각1 (평생직업/ 다른 직업 택함)	0.131	0.136	0.225	0.961	0.339
응급구조직에 대한 생각2 (가능한한 유지/ 다른 직업 택함)	0.069	0.132	0.132	0.518	0.605
응급구조직에 대한 생각3 (잠정적으로 유지/ 다른 직업 택함)	0.123	0.141	0.177	0.871	0.386
윤리교육 참석여부 (1=참석함, 0=참석안함)	-0.127	0.058	-0.216	-2.183	0.031
윤리적기준 1 (매우확고/ 상황에 따라 바뀜)	0.190	0.070	0.278	2.703	0.008
윤리적기준 2 (가끔흔동/ 상황에 따라 바뀜)	0.043	0.054	0.080	0.796	0.428

R² = 0.14, Adjusted R² = 0.05, F = 0.16

V. 고찰

응급구조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격에 대한 존중이 모든 의료윤리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결정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으로 인지되고, 미래의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응급구조사에게도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면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되므로 학생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⁵⁾.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직에 대한 직업관을 묻는 질문에서 '보장된 직업이므로 가능한 한 유지한다'는 답변이 1학년 66%, 2학년 52.5%, 3학년 42%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다소 낮아져서 응급구조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평생직업으로 삼는다'에서는 1학년 18%, 2학년 32.5%, 3학년 30%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급구조직에 대한 태도가 확고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⁵⁾의 연구에서는 '평생직업으로 삼는다'가 1학년 17.5%, 2학년 18%로서 별 차이가 없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다른 직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취업률과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윤리적 기준이 '매우 확고하다'의 응답은 1학년 14.0%, 2학년 10.0%, 3학년이 22.0%로 3학년이 가장 높았다. 이는 김⁵⁾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인간의 안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5,13)}. 다행스럽게도 윤리교육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학년 18%, 2학년 17.5%, 3학년 42.0%로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곧 응급구조직으로 나아가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이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전체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1학년이 2.86점, 2학년 2.75점, 3학년 2.88점으로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학년간 차이를 보였다($p < 0.049$). 지금까지 응급구조과 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리적 가치관 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다소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2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하면서 모든 생명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어떤 생명이 계속 생존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에 의거해서 각 생명은 다른 생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가치를 갖게 되는 김¹⁴⁾의 연구결과처럼 공리주의 입장을 더 취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윤리적 가치관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1학년이 평균 점수가 2.68점, 2학년 2.47점, 3학년은 2.69점으로 역시 2학년이 1,3학년에 비하여 다소 공리주의 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간호학과와 의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연구에서 인간생명 영역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김¹³⁾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학생간의 윤리적 가치관을 연구한 최¹⁵⁾와, 응급구조과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⁵⁾, 박¹⁶⁾의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여서 본 연구와는 달랐다.

문항별로 보면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에서 1학년이 2.85점으로 가장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2학년이 2.17점으로 공리주의 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서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최¹⁵⁾의 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하면서 이론과 실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또한 실습을 하면서 의무주의적 윤리보다는 상황에 맞도록 행동하는 공리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대상자 관계 영역에서는 1학년, 2.93점, 2학년 2.97점, 3학년 3.03점으로 모두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무주의적 경향이 더 강했다. 그러나 문항별로 가장 공리주의 적인 입장을 보인 문항은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 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에서 1학년이 1.62점, 2학년이 2.00점, 3학년 2.02점이었다. 이는 환자 비밀 상황보다 생명의 고귀함을 먼저 더 생각한 결과로 박¹⁶⁾과, 김⁵⁾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1학년 2.80점, 2학년 2.70점, 3학년 2.78점으로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문항별로 보면 ‘의사의 행위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에서 1학년이 2.94점, 2학년이 3.47점, 3학년이 3.4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무주의 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F = 5.62, p = 0.00$). 이는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처방 없이 단독으로 행해 질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치료를 해도 불구가 되는 중환자보다는 재활이 가능한 경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둔다’에서 1학년 2.50, 2학년 2.07점, 3학년이 1.84점으로 3학년이 가장 공리주의 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4.77, p < 0.01$). 이는 김⁵⁾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환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위약(placebo)을 주어서는 안 된다’에서도 1학년 2.48점, 2학년 1.92점, 3학년 2.30점으로 2학년이 가장 공리주의 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3.37, p < 0.02$). 이는 교과과정과 임상경험을 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환자의 알권리를 중요시하는 원칙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 질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신의의 원칙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김⁵⁾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1학년이 3.21점, 2학년 3.08점, 3학년 3.17점으로 영역 중에서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동료간의 의리보다는 환

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취해야 할 이타주의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것으로 강¹⁷⁾, 김⁵⁾, 최¹⁵⁾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윤리적 가치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3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윤리교육시 ‘참석하지 않을 때’에 비하여 ‘참석할 때’, 윤리적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할 때’ 보다는 ‘매우 확고’할 때,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2학년을 대상으로 윤리적 기준이 매우 확고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윤리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윤리 교육을 통하여 직업윤리에 근거한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10월 9일~11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연구로서, 경상북도 P시에 소재한 1개 응급구조과 학생 1학년 50명, 2학년 40명, 3학년 50명으로 총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는 김⁵⁾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3.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test,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전체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학년 모두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학년간 차이를 보였다($p < 0.049$).

각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 변화에서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2학년이 1, 3학년에 비하여 다소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 관계 영역에서는 학년 모두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무론적 경향이 더 강했다.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학년모두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학년 모두 영역 중에서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윤리적 가치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3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윤리교육시 참석하지 않을 때에 비하여 참석할 때, 윤리적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할 때 보다는 매우 확고할 때,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는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응급구조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시급하며, 학과 특성에 맞는 윤리교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구태희.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 정유석, 박석건. 새롭게 시작하는 의료윤리 교육 -윤리교육 교육경험과 교육전후의 가치관의 변화-. 한국의학교육 2000;12(1):97-105.
3. 한성숙.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과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4. 김학수, 최은수, 짐진희, 신동민, 이인수. 일부 전문대 응급구조학생의 응급구조전문직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 논문지. 1997;1(1):28-41.
5. 김미선. 응급구조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집. 2001; 5(5):37-51.
6. 조결자, 송미령. 간호학생의 간호관 형성과 변화 양상. 간호행정학회지. 1997;3(1):17-36.
7.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박영사; 1984.
8. 이영숙.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0;20(2):249-270.
9. 정희자, 문화자.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995;1(2):349-371.
10. 전산초, 김수지, 변창자. 간호철학. 윤리. 서울: 수문사; 1993.
11. 구영모. 생명의료 윤리강좌. 서울대학교 가산대학 자료실. 1999.
12. 한성숙. 간호윤리 정립의 필요성. 대한간호. 1994;33(2):19-29.
13. 김태숙. 간호학과와 의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비교. 대한간호학회지(1999); 29(4): 892-902.
14. 김문자.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5. 최영란.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의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6. 박미화.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변화 양상.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0;6(2):199-217.
17. 강익화.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태도조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8;12(2), 48-66.

=Abstract=

Ethical Values of EMT Students

Myung-Ae Jung* · Sun-Sim Kim**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thical values of EMT students.

Method: The results below were based on the revised questionnaires, which can be applicable to EMT from the using questionnaires by Kim(2001), with a sample of 140 students consisting of 50 freshman, 40 sophomore and junior 50, conducted October 9–11, 2006.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3.0 in terms of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χ^2 -test,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ethical value was deontological ethic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F = 3.072$, $p < 0.049$).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freshman is 2.86 ± 0.28 , sophomore is 2.75 ± 0.25 , junior is 2.88 ± 0.21 . In the area of Human life, subjects showed utilitarian disposition.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In the area of patient relationship, all students of three groups took on deontological ethic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ea of task relationship, all students of three groups took on deontological ethic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ea of coworker relationship, all students of three groups took on deontological ethic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s a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ssociated factors with ethical values were second students, participation of ethical education, a firm belief of ethical values.

Conclusion: This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of ethical values must instruct to EMT students. More and m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further application tool of EMT.

Key Words: Ethical values, EMT students, deontological ethics

* School Health Teacher, Sinheung Elementary School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unlin college